

## 光日春秋

김 탁 환



## [ 오피니언 ]

3월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새내기가 오가는 교정은 봄바람과 함께 싱그러움으로 넘쳐난다. 각 스무 살, 나는 꿈 많던 그 시절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매혹’과 ‘불안’을 끊는다.

매혹이란 무엇인가. 프랑스 비평가 모리스 블랑쇼는 지적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시간의 부재, 그 매혹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라고. 어찌 글쓰기뿐이라. 자신이 택한 일에 몰두하여 시간의 흐름조차 잊는 것, 저물 무렵 일을 시작하여 길어야 30분쯤 지났으리라 여겼는데 밝아오는 동쪽 창문에 깜짝 놀라는 것. 그것이 바로 매혹이다. 스무 살은 자신을 매혹시키는 일을 찾고 그 일에 온 몸, 온 마음을 바쳐 몰두하는 시절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불안이란 무엇일까.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의 문학청년 시절을 예로 들어보자. 밤을 꼬박 새워 쓰고 또 쓴 습작을 통해 카프카는 글쓰기의 얼마나 매혹적인 일인가를 알아버렸다. 오직 글만 쓰면서 하루를 한 해를 평생을 보내고 싶은 것이다. 열정을 다하여 글을 짓던 카프카

도 늘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욕망에 필적할 만큼 완성도 높은 작품을 쓰지 못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다.

1912년 9월 22일 밤을 새워 ‘선고’란 단편을 완성하고는 “모든 것이 표현될 수 있

## ‘불안’과 ‘매혹’

을 듯하고, 큰 불이 준비되어 그 불 속에 모든 것, 가장 기이한 생각들조차 불타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며 기뻐하는 카프카. 1914년 중편 ‘변신’을 완성한 후 ‘변신’에 대하여 심한 혐오를 느낀다. 마지막 부분은 읽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 그때 사업여행으로 방해를 받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데”라며 극도의 불안을 드러내는 카프카. 프리하 출신의 섬세한 소설가는 과잉된 매혹과 과잉된 불안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갔다. 이 위험한 와중타기와 짚음의 순수한 표정이고 현재까지 전 세계의 짚은이들이

날카롭게 비판한다. 블랑쇼에 따르면 작가에게 이로운 상황이란 영원히 찾아들지 않는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전부 바친다 해도 충분하지 않다. “자기의 시간을 글 쓰는 것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작업도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시간 속으로 이동하는 것, 시간이 상실되는 지점, 매혹과 시간의 부재가 주는 고독 속에 돌입하는 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스무 살 대학 새내기에게 불안과 매혹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외적인 변명 따윈 일찌감치 접고

열광하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스무 살은 성공을 향한 욕망이 큰 만큼 좌절로 인한 두려움도 깊고 자신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찾다. 과연 카프카가 “사업여행으로 방해를 받지 않았더라면” 탁월한 소설을 썼을까. 내 아버지가 조금 더 부자였더라면, 이 대학교가 아니라 저 대학교에 합격했다라면, 사사롭게 쓸 시간이 넉넉했더라면, 스무 살 짚은 이는 좀 더 쉽게 불안을 이기고 좀 더 아득한 매혹으로 나아갔을까.

노리스 블랑쇼는 짚은 카프카의 변명을

일 그 자체가 내뿜는 매혹에 다가가는 것이다. 불안을 이기지 못해 일로부터 멀어지거나 자책하며 일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려운 선택은 없다.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도 처음부터 ‘지옥문’이나 ‘칼레의 시민’ 같은 걸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발자크 평전’에서 즈바이크는 훗날 ‘인간희극’이라는 전대미문의 작품을 남기는 대작가의 보잘 것 없는 짚은 날을 꾸밈없이 전한다. “이 뒷된 짚은 이의 재능이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보인 적이 있었던가? 한 번도 없었다! 학교마다 그는 벌 받는 자리에 있었고 라틴어는 32등이었다!”

불안과 매혹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불안도 사라지고 매혹도 없는 일상이 백배는 더 위험하다. 미래의 안락을 정해두고 현재를 단지 그곳으로 가는 수단쯤으로 파악하는 삶이 천배는 더 끔찍하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 언제나 첫마음으로 돌아가서 매혹에 떨고 불안에 잠길 일이다.

갓 스물의 짚은이여! 불안한가? 책상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라. 불안한가? 잠을 줄여 그대 일에 몰두하라, 즐겨라. 불안은 매혹의 어머니일지니.

〈소설가·카이스트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얼마 전 급성 담낭염 때문에 담낭 제거술을 받았다.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입원했다. 44년간의 의사생활 동안 처음 경험한 입원이었고 처음 받아 본 수술이었다. 환자의 고통과 통증을 치료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환자로써 ‘통증’을 처음 경험해 본 것이다.

필자가 만약 의사가 되기 전에 이러한 경험을 했더라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 지금과는 달랐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진료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지만 환자의 입장이 아닌 의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그동안 필자를 거쳐 간 환자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아픔’이란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

놔줬다. 진통제를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는 필자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것 같지도 않았다. 물론 간호사는 놀고 있는 것 아니니 필자보다 더 중한 환자를 돌보느라 쉴 새 없이 뛰고 있었다. 충분한 수의 간호사를 확보할 수 없는 병원 때문 때문에 객실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고충과 노고를 이해하게 됐다.

환자인 필자에게 있어서 간호사의 실력이나 기술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환자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고맙게 느껴졌다.

수술 의사인 필자는 아는 사람도 아니요, 과거에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의 경력이나 실력에 대해서도 아는 바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아무 주저없이 생명을 그

## 의사인 내가 환자가 되고 보니…

었기 때문에 그저 ‘참아라’고 가볍게 했던 필자의 한마디가 환자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소리로 받아들여졌을까하는 생각에 부끄럽다. 아파서 의사 찾아온 사람에게 의사와 아픈 것을 참으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어디를 가서 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픔은 경험 해보지 못한 사람은 남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의료인과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경험을 얘기한다.

첫째, 환자의 통증은 즉시 해결해줘야 한다. 의사인 필자는 다른 환자들보다 아마도 ‘특별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파서 진통제를 달라고 신호하면 보통 30분 후에나 진통제 주사를

에게 맡겼다. 그 이유는 그 외과의사를 선택해준 필자의 주치의가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또 수술 후에 합병증이 발생해 더 오래 고생했지만 그 의사가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의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결국 환자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입원 중 친지들의 방문은 참으로 고마웠고 큰 위로가 되었다. 다만 환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되도록 방문시간은 짧게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남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간호원실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농담과 웃음소리는 환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환자는 그만은 신경이 예민해졌음을 이해했으면 한다.

## 기 고



## 박태웅

‘天下憂樂在選舉(천하우락재선거)’ 조선후기 실학자 최한기가 쓴 ‘인정(人政)’의 ‘선입문론(選人門篇)’에 나오는 글이다. 요즘 말로 바꾸면 ‘동시대의 평균인 이상의 인품과 자질을 겸비한 사람을 뽑아 공직을 맡기면 국방과 경제 그리고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나라일이 제대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생이 어렵고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대의제 민주정치가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이고 이 체제하에서는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하여 공직자를 뽑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에 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위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고 바람직하지 못한 투표행태를 극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관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다를 수 있겠지만 1994년 제정된 이후 22차례의 개정을 거친 공직선거법에는 낮은 투표율, 연고 중심의 투표 성향, 금품을 이용한 매표 행위, 네거티브 선거운동 등을 선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걸림돌로 진단했다. 그리고 그 처방으로 50 배 과태료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舉)

투철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한 증거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여러 현상들에 서 나타난다.

예컨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과 매도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빈부귀贱, 이념적 편차에 관계없이 이구동성이지만 자신의 투표성향에 대한 반성적 회고와 분석은 드물다. 심지어 기권을 지성의 표지인양 투표를 백안시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선거에서 연고와 금품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 역시 비일비재하다. 특히 작년 겨울에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결과는 금품선거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유권자 5천여명에게 5억6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54명이 구속되고 1천여명이 조사를 받는가 하면 급기야는 심리적 압박감을 겪디다 못한 선거운동원 2명이 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걸림돌을 치우고 디딤돌을 쌓는 데 있어 후보자, 정당, 선거운동원의 준법의식과 페어플레이 정신이 필수적이며 선관위와 사직당국 또한 보다 철저하고 창의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키는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 유권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소에 나가서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봉사정신을 우선적인 선택기준으로 삼고 흑색비방선전이나 금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 정당을 헐저히 배제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민주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공명선거의 정착 여부는 유권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생리현상마저 참아야 하는 열악한 노동현장 관심 갖길

최근 아랫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 진찰 결과 방광염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소변을 참는 버릇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듣고 그동안 다녔던 할인마트의 계산원 일을 그만뒀다.

대형 할인 매장의 계산원들은 항상 용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규정에는 두 시간마다 쉬도록 되어 있지만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일할 때는 소변 보러 화장실에 갈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 마트의 계산원이 장바구니를 든 채 길게 줄 서 있는 손님들을 봄 아둔 재 화장실에 갈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아마 그리 했다면 당장 해고될 것이다.

그러다보니 3시간은 보통이고 길게는 네 시간 이상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게 현

실이다. 그나마 손님들이 약간 줄어들면 눈치껏 화장실에 다녀오긴 하지만 이 미처 보이지 않는 눈총을 받기 일쑤다. 심지어 관리자가 지나가면서 “오줌이 마려우면 알아서 조금씩 말려”라며 노골적으로 질책하기도 한다.

이렇듯 마트의 계산원들은 화장실 갈 걱정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음 놓고 마실 수 없고 생리현상마저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일을 한다. 이것이 만상이 돼 방광에 무리가 온 것이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리현상마저 해결 못하는 직종이 또 어디 있겠는가. 노동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노은영·목포시 석현동

## 치료비·약값 많이 드는 희귀질환 보험상품 절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보험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마라톤 보험’이 나왔는가 하면 청소년을 위한 ‘왕따 보험’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많은 경우에 비해 정작 희귀질환과 관련된 보험은 거의 찾기 어렵다. 즉 수익성이 낮다고 생각되면 보험의 공익적 측면은 내팽개친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희귀질환을 앓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간 질환인 유전성 타이로이드증, 신장 양쪽에 낭종이 생기는 유전성 질

환인 다낭신(多囊腎), 피부조직 약해 부딪히기만 해도 찢어지는 엘리스-단로스 증후군, X염색체 돌연변이 유전성 혈액질환인 위스코트 알드리히 증후군 등 이루 다 해야될 수가 없다.

희귀질환의 경우 치료비나 약값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보험상품은 더욱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보험회사들의 영업허가시 같은 보험상품 개발은 물론 판매까지 일정부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이 같은 희귀질환은 갈수록 늘어갈 것이다므로 보험은 더욱더 유통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 시 설

## 불합리한 농업규제 서둘러 철폐하라

전남도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39개를 발굴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했다고 한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농업관련 제도를 개선해 농산물을 수입개방 확대와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식량안보 시대에 돌입했다. 최근 국제곡물가 급등에서 보듯이 농업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수출제한 조치로 식량을 무기화할 조짐까지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식량 자급률이 고작 28%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책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 FTA로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가져온다.

한국농자 사용 및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등 농업관련 제도의 지나친 규제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특히

## 전남대 교수 채용 ‘담합 의혹’ 엄벌해야

전남대가 교수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담합의혹을 받은 교수 5명을 직위에 제적했다. 전남대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수 채용에서 의혹이 또 제기돼 개탄스럽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수들의 행태는 지장을 받아 마땅하다. 정의와 교수 채용과 관련, 심사위원 3명이 전공 세미나 발표 심사에서 응모자 3명 모두에게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어 탈락시켰다고 한다. 또 여수캠퍼스 공대 교수 채용에선 심사위원 2명이 응모자의 논문에 대해 사전답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교수 채용에 따른 잡음과 비리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관행처럼 짐을 감안하면 정직, 과학,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다 교수들의 의식이 이 경계에 빠졌다.

대학사회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에서 교수 채용 비리는 ‘관행’이란 이유로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문책을 통해 교수